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 실태를 살펴보고, 비행 여부에 대한 가정환경,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의 영향 구조를 분석하며, 남녀 집단 간 구조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2,368명을 추출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 따돌림 시키기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구조모형들 간의 비교에서는 가정환경→부모의 지지→자기통제수준→비행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과 자기통제수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부모의 지지와 비행 간에는 자기통제수준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형적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검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게서 모형적합도가 양호하였으나, 측정 동일성 및 구조 동일성 검증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가정환경,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 청소년 비행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길목의 청소년들은 그 시기적 특성상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자칫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의 길로 빠지기 쉽다. 이들이 보이는 부적응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비행이라 할 수 있다. 비행이란 자신의 신분

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으로는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가출, 폭력, 금품갈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시작할 때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부터 시작하는 것

* 교신저자: 백혜정, E-mail: hbaek@nypi.re.kr

이 일반적이며, 점차 심각한 비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순래, 2005). 청소년기의 비행은 과도기를 지나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자연히 감소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기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계 및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청소년의 심리적 상황을 분석하여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크게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환경적 측면 중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는 가정변인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가정환경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부모의 지지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자기통제수준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원인 규명에서 빠지지 않는 예측변인 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다. 즉 가정환경이 양호할수록 청소년들의 비행은 감소하는 반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비행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기광도, 2001). 여기서 말하는 가정환경 안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가족 구조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주요 예측변인으로 하여 가정환경과 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상당수에 이른다(하영희, 김경연, 2003; Shaffer, 2000).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연구들 중에는 위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가족의 소득수준과 청소년 비행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가 그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나타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비행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제 3의 변수, 즉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힐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매개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로, 하영희와 김경연(2003)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통제와 부모의 훈육방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가정의 부모는 설득형 양육방식을 채택하고 자녀의 자기통제수준은 높아지면서 도덕적 금지행동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가정환경, 특히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또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안진 등, 2005; 하영희, 김경연, 2003; Demuth & Brown, 2004).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어떤 연구자들(McLanahan & Sandefur, 1994)은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즉,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은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혼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조사(김미숙, 박민정, 이사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44.5%로 양친가족(7.8%)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Demuth & Brown, 2004)은 한부모 가정은 가족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양부모 가정에 비해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양육행동의 질이 떨어지고, 부모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청소년기 자녀들의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은정, 백혜정, 2007)에서도 이혼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소득의 저하 그 자체보다는 이혼과 소득저하에 따른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 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구조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매개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양육행동 내지는 부모-자녀 간의 애착과 같은 관계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Amato(2001)는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부재나 경제적 어려움 보다 가족 내의 갈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rych, Raynor와 Fosco(2004) 역시 가족구조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행

동 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보다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가정 내 관계적 환경의 열악함은 청소년의 비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 내 관계적 변인 중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고, 자신은 의미있는 존재이며, 의사소통과 상호의무가 존재하는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Cobb, 1976).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약물 사용이나 비행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Hughes, Power, & Francis, 1992; Lee, 1993),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비행에 관여하거나 알콜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organ, Chang, & Pettit, 1994; Rosenbaum, 1989).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부모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열악함은 곧 부모의 심리적 여유를 감소시킴으로써 자녀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인식하여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비행에 가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열악한 환경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며, 이는 청소년 비행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족환경과 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자기통제를 들 수 있다. 자기

통제능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욕구에 둔감하며, 위협을 추구하고, 쉽게 화를 내는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Grasmick, Tittle, Bursick, & Arneklev, 1993). 청소년들의 비행과 자기통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근본적으로 비행이 낮은 자기통제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에 있어 자기통제 능력을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고정자, 2005; 민수홍, 2006; 하영희, 2003). 더 나아가 Pratt과 Cullen(2000)은 21개의 경험적 실증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통해 자기통제능력이 일관되게 범죄 및 비행에 대한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통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걸쳐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가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요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태도(기광도, 2001), 부모의 지도감독(Polakowski, 1994)이나 비효과적인 양육행동(Feldman & Weinberger, 1994) 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기통제수준이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리적 가정환경변인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감독과 같은 관계적 변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기통제가 부모와의 관계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만든다. 실제로 몇몇 선행연구들은 경험적 실증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비행의 매개효과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Feldman과 Weinberger(1994)는 6학년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감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비행행동을 완전매개한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통제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수홍, 2006; 정소희, 2007; Hay, 2001; Vazsony & Bellison, 200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리적 가정환경은 청소년들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지지와 같은 관계적 가정환경 또는 자기통제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지지와 같은 관계적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자기통제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거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비행이나 자기통제수준 등 각 변인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자기통제수준과 관련하여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것(이경님, 2001)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허수경, 이경님, 1996)도 있어 자기통제의 성차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권재환, 이은희, 2007)과 애착 수준(황창순, 2007; Armsden & Greenberg, 1987)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비행에서의 성차를 보고하기도 한다(김경연, 하영희, 2003; 김현실, 2002).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김현실(2002)의 연구에서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비행 경로에서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비행 실태를 살펴 본 후 다음 단계로 모형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 환경과 청소년들의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수준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장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이 선정되면, 다음 단계로 전체 연구대상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 청소년을 각 집단별로 비교·검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모형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부모의 지지 및 자기통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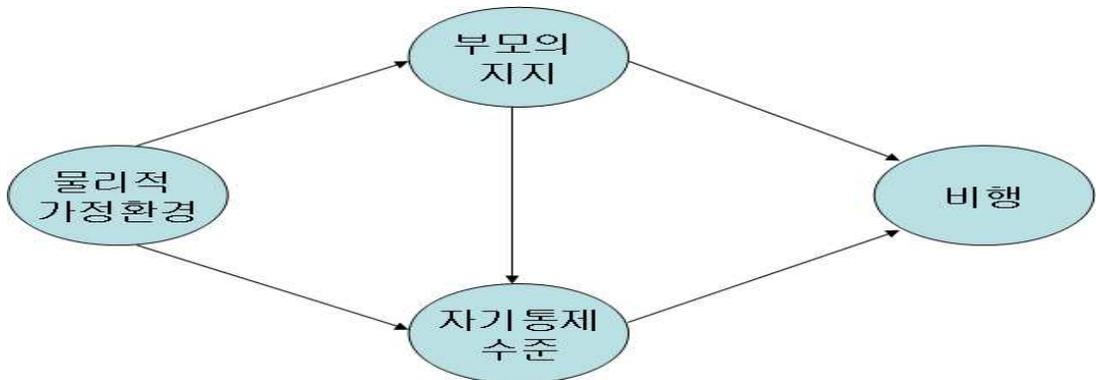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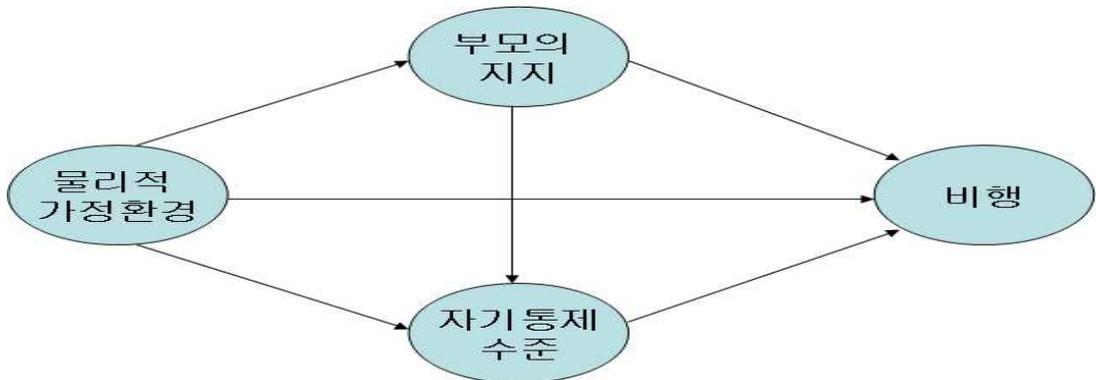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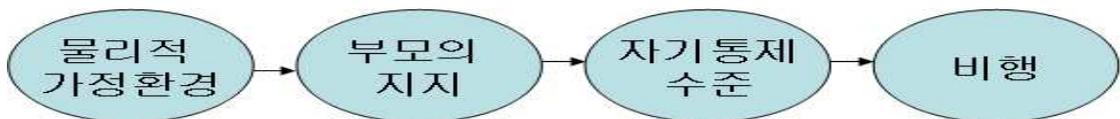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2

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통제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제 1경쟁모형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수준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자기통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 제 2경쟁모형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부모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지지는 자기통제수준에, 그리고 자기통제수준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 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총 2,368명이다. 무응답자 227명(9.6%)을 제외하고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1,090명(46%), 여학생 1,051명(44.4%)이 조사에 응했다. 학교계열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총 44개교에서 1,244명(52.5%), 고등학생은 총 40개교에서 1,124명(47.5%)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들을 계열별로 나누어보면, 인문계 730명(33.2%)과 전문계 294명(14.2%)이다(표 1).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525명(24.5%), 서울시 398명(18.6%), 경상남도 370명(17.3%), 전라도 322명(15.0%), 충청도 226명(10.6%), 경상북도 202명(9.4%), 강원도 98명(4.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크기별로는 대도시에 1,170명(54.6%), 중·소도시에 682명(31.9%), 군 지역에 289명(13.5%)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 연구대상

구분		남자	여자	총
중학교	1학년	233	161	394
	2학년	190	209	399
	3학년	131	193	324
	총	554	563	1,117
고등학교	1학년	239	139	378
	2학년	90	212	302
	3학년	14	36	50
	총	343	387	730
전문계	1학년	108	46	154
	2학년	23	21	44
	3학년	62	34	96
	총	193	101	294
총	1,090	1,051	2,141	

* 무응답: 227명 제외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력을 물어보았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경제적 수준이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약 53.8%로 가장 많았고, ‘중상(18.4)’과 ‘중하(14.0%)’가 그 뒤를 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4%와 3.7%였다. 이러한 비율은 거주지역의 크기에 따라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크기별 부모의 학력 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순으로 부모의 학력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크기에 따라 학력 수준의 순서가 다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각각 47.4%와 59.7%로 가장 많았고, 대졸인 경우는 아버지가 35.8%, 어머니가 26.0%로 그 뒤를 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가정의 경제소득수준, 부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 그리고 비행의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비행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은 크게 지위비행 관련 4문항, 폭력 관련 5문항, 금품갈취 관련 2문항으로 나누어 총 1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모두 이분문항(있다-없다)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지지에 대한 문항은 Sherbourne과 Stewart(1991,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6 재인용)의 MOS 사회적 지지 조사표와 Delongis 등(1988,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6 재인용)이 사용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김

정희(1992,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6 재인용)가 제작한 검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수를 적게 함으로써 사회적 조직망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는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지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문항만을 선택하여 부모의 지지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이 중 마지막 문항인 ‘내가 집안일을 할 수 없을 때 기꺼이 도와준다’라는 문항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원래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중앙으로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은경(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Gottfredson과 Hirschi(1990, 김은경, 2006 재인용)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남현미(1999, 김은경, 2006 재인용)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재구성하고, 이계원(2001, 김은경, 2006 재인용)이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 도구에서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중앙으로 물리

* 어머니 학력과 아버지 학력 간의 상관계수는 .69로 두 변수간의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양병화(2000)의 제시에 따라 어머니 학력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 여부

유형	평균(표준편차)		없다(명(%))	있다(명(%))			무응답 및 결측치(명(%))	N
	남	여		남	여	총		
흡연	1.26(.44)	1.26(.33)	1,696(79.2)	280	129	409(19.1)	36(1.7)	2,141
음주	1.43(.50)	1.47(.50)	1,166(54.5)	453	483	936(43.7)	39(1.8)	2,141
무단결석	1.11(.31)	1.10(.30)	1,895(88.5)	114	103	217(10.1)	29(1.4)	2,141
가출	1.11(.31)	1.09(.29)	1,907(89.1)	116	94	210(9.8)	24(1.1)	2,141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14(.34)	1.08(.27)	1,886(88.1)	146	82	228(10.6)	27(1.3)	2,141
패싸움	1.05(.22)	1.04(.20)	2,019(94.3)	54	44	98(4.6)	24(1.1)	2,141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1.08(.28)	1.09(.28)	1,934(90.3)	88	91	179(8.4)	28(1.3)	2,14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15(.35)	1.11(.32)	1,837(85.8)	156	118	274(12.8)	30(1.4)	2,141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25(.44)	1.12(.32)	1,720(80.3)	270	124	394(18.4)	27(1.3)	2,141
남을 헐박하기	1.09(.29)	1.05(.23)	1,955(91.3)	101	56	157(7.3)	29(1.4)	2,141
다른 친구 따돌림 시키기	1.18(.38)	1.22(.41)	1,697(79.3)	189	226	415(19.4)	29(1.4)	2,141

는 것을 막기 위하여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바꾸었으며, 문항은 총 20개로 이루어졌다. 문항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10문항)와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10문항)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은 높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 추구에 관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변인으로는 경제소득수준, 부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여부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경제소득수준 문항은 5점 척도(상-중상-중-중하-하)를 사용한 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부의 학력은 4점 척도(대학원 이상-대졸-고졸-중졸 이하)를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응답 당시 함께 사는 친부모의 수에 따라 양부모가족(3점), 한부모가족(2점), 무(無)부모가족(1점)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2,368명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 중 성별에 대한 무응답 자료 227부를 제외한 나머지 2,141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0.0을 이용하여 비행 실태 빈도,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했으며,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결 과

이 연구는 가정환경, 자기통제 및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격적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청소년들의 비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 전체 집단의 연구변인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2,141)						
연구변인	1	2	3	4	5	6
1. 사회경제적 지위	1.00					
2. 아버지 학력	.26**	1.00				
3. 부모와의 동거여부	-.19**	-.04	1.00			
4. 부모의 지지	-.17**	-.09**	.08**	1.00		
5. 자기통제	-.08**	-.07**	.02	.27**	1.00	
6. 비행	.02	.02	-.06**	-.14**	-.27**	1.00
평균	2.94	2.48	1.83	40.80	54.31	12.64
표준편차	.83	.77	.47	7.99	6.34	2.10

** $p < .01$

표 4. 남자 청소년 집단의 연구변인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090)						
연구변인	1	2	3	4	5	6
1. 사회경제적 지위	1.00					
2. 아버지 학력	.24**	1.00				
3. 부모와의 동거여부	-.20**	-.01	1.00			
4. 부모의 지지	-.17**	-.15**	.05	1.00		
5. 자기통제	-.10**	-.08*	.02	.27**	1.00	
6. 비행	.02	.03	-.08*	-.09**	-.24**	1.00
평균	2.97	2.50	1.81	40.41	54.56	12.82
표준편차	.89	.80	.49	8.11	6.39	2.20

* $p < .05$ ** $p < .01$

표 5. 여자 청소년 집단의 연구변인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051)						
연구변인	1	2	3	4	5	6
1. 사회경제적 지위	1.00					
2. 아버지 학력	.28**	1.00				
3. 부모와의 동거여부	-.18**	-.07*	1.00			
4. 부모의 지지	-.19**	-.05	.13**	1.00		
5. 자기통제	-.06**	-.06	.02	.27**	1.00	
6. 비행	.01	.03	-.04	-.18**	-.32**	1.00
평균	2.90	2.45	1.85	41.20	54.05	12.46
표준편차	.76	.73	.45	7.86	6.29	1.97

* $p < .05$ ** $p < .01$

총 2,141명(남자 1,090명; 여자 1,051명)의 청소년들 중 비행 경험한 비율은, 연구 대상자의 약 4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음주를 제외하고, 유형에 따라 대개 4~20%로 나타났다(표 2).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비행은 음주로 나타났으며, 다른 친구 따돌림 시키기, 흡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대상자의 10% 이상이 경험한 비행으로는 무단결석,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이 포함되었다. 가장 적게 경험한 비행은 껌싸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비행에서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흡연(13.4%p),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13%p),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5.6%p), 남을 협박하기(4%p),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3%p) 등에서 남자의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흡연($t(2103)=8.09, p<.01$),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t(2112)=8.00, p<.01$),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t(2112)=4.29, p<.01$), 남을 협박하기($t(2110)=3.58, p<.0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t(2109)=2.22, p<.05$)).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보다 다른 친구따돌림 시키기(4.2%p)에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2110)=-2.33, p<.0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실시한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전체 집단의 경우 .02~.27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지지($t(2086)=-2.260, p<.05$)와 비행경험유무($t(2064)=3.848,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표 4와 5 참고). 즉,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더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도출된 연구 및 경쟁 모형 중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방식은 공분산행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가 경쟁모형 1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다(홍세희, 2007). 이 연구에서는 모형간의 χ^2 값 차이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p=.05$)의 임계치*를 넘지 못하여 자료를 설명하는 모형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세 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2가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4는 연구모형과 각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 및 각 변인에 대한 설명량(R^2)이다.

다음 단계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Z_{ab} **값을 구하여 각 경로에 있어서 매개변인들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구해진 Z_{ab} 값을 임계치인 ± 1.96 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정환경과 자기통제수준 사이에서의 부모의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와, 부모의 지지와 비행 사이에서의 자기통제수준이 갖는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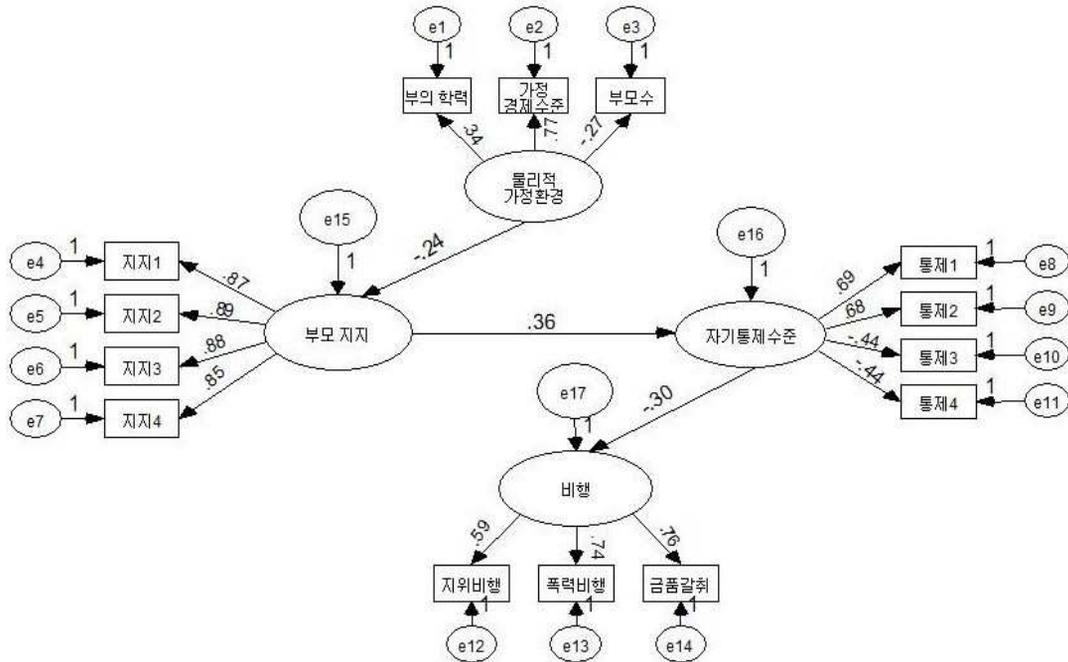
* χ^2 분포도에 따라 $df=1$ 일 때 χ^2 값의 임계치는 3.84, $df=2$ 일 때 χ^2 값의 임계치는 5.99, $df=3$ 일 때 χ^2 값의 임계치는 7.82임.

** $Z_{ab} = \frac{ab}{\sqrt{SEa^2SEb^2 + b^2SEa^2 + a^2SEb^2}}$

표 6.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TLI	RMSEA
연구모형	857.2	72	.989	.071
경쟁모형 1	856.6	71	.988	.072
경쟁모형 2	861.6	74	.989	.071

각 모형은 그림 1을 참조



* 모든 계수는 $p < .01$

그림 4. 물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 일탈행동의 구조모형

다(표 7).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난 경쟁모형 2를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나누어 적용해 보았을 때 역시 두 집단 모두에게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측정 및 구조 동일성 검증을 포함한다.

우선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 변수

에 대한 요인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기저모형(경쟁모형 2)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완전제약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저모형과 완전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iff}=50.2, df_{diff}=10, p < .05$). 이러한 경우 완전 측정 동일성 가정이 기각된 것으로 가정하여, 부분 측정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부분 측정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

표 7. 각 경로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매개 경로	추정치(표준오차)a	추정치(표준오차)b	Z _{ab}
가정환경→부모지지→자기통제수준	-2.228(.326)	.243(.019)	-5.90
부모지지→자기통제수준→비행	.243(.019)	-.074(.008)	-7.47

a 첫 번째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

b 두 번째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

*p<.05

여 남녀 집단에 대응하는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후 그 값의 차이가 큰 계수부터 하나씩 제약을 풀어주었다. 그 결과, 물리적 가정환경에서 가정의 경제수준, 자기통제수준에서 통제 3과 통제 4, 비행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주었을 때, 기저모형과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chi^2_{diff}=9.6$, $df_{diff}=5$, $p>.05$) 부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부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구조 동일성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였다. 구조 동일성 가정은 각 집단의 요인 계수가 부분적으로 같다고 제약을 가한 부분 측정 동일성 모형과 거기에 각 잠재 변수의 경로계수까지 같다고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화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검증된다. 완전 구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부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 모형과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iff}=22.2$, $df_{diff}=3$, $p>.05$). 이러한 경우 완전 구조 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어 부분 구조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부분 구조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에 대응하는 비표준

화 계수를 비교하여 그 값의 차이가 큰 경로부터 하나씩 제약을 풀어주었다. 그 결과, 자기통제수준에서 비행으로 향하는 경로를 풀어주었을 때, 부분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과의 χ^2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_{diff}=4.7$, $df_{diff}=2$, $p>.05$).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8

과 같다. 그림 5와 6은 남녀 집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과 각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 및 각 변인에 대한 설명량(R^2)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경로 계수가 남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지라도 성별에 따라 자기통제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 및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였다.

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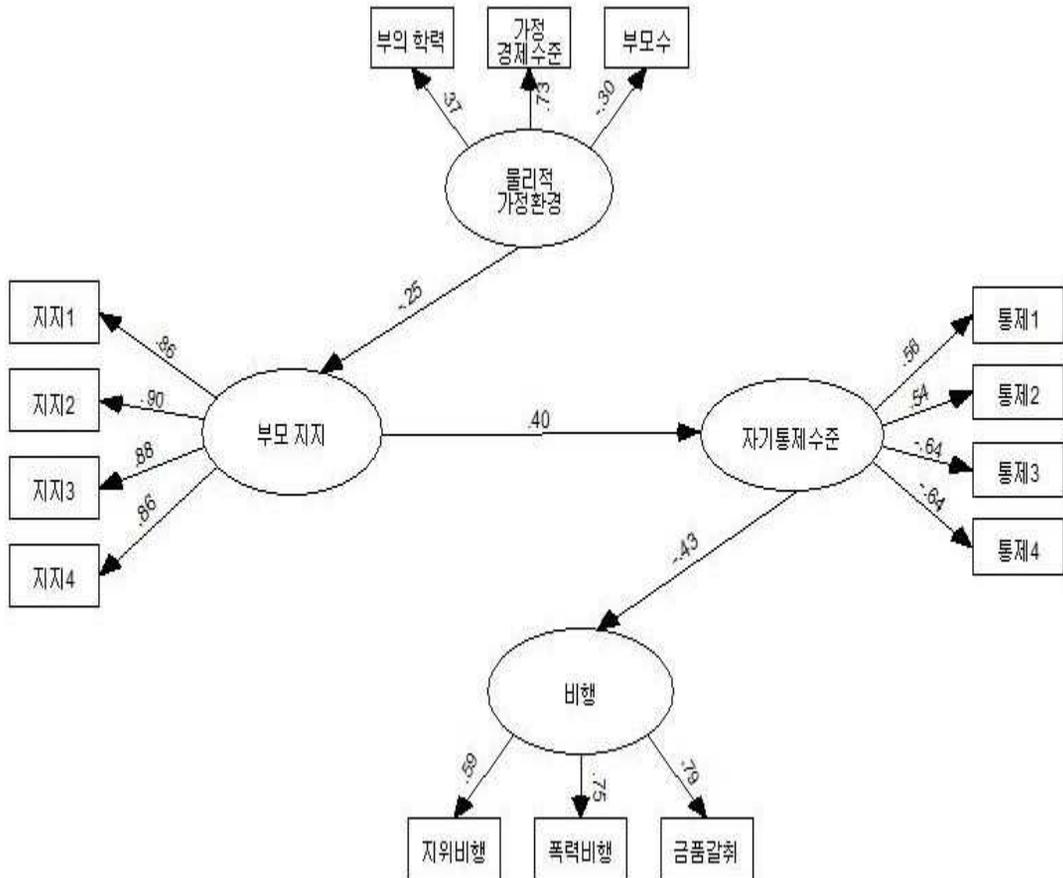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와 청소년의 자기통제수준이 갖는 매개 효과와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전체 집단과 남·여 집단에서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모형 검증과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와 비행 여부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에서의 성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표 8.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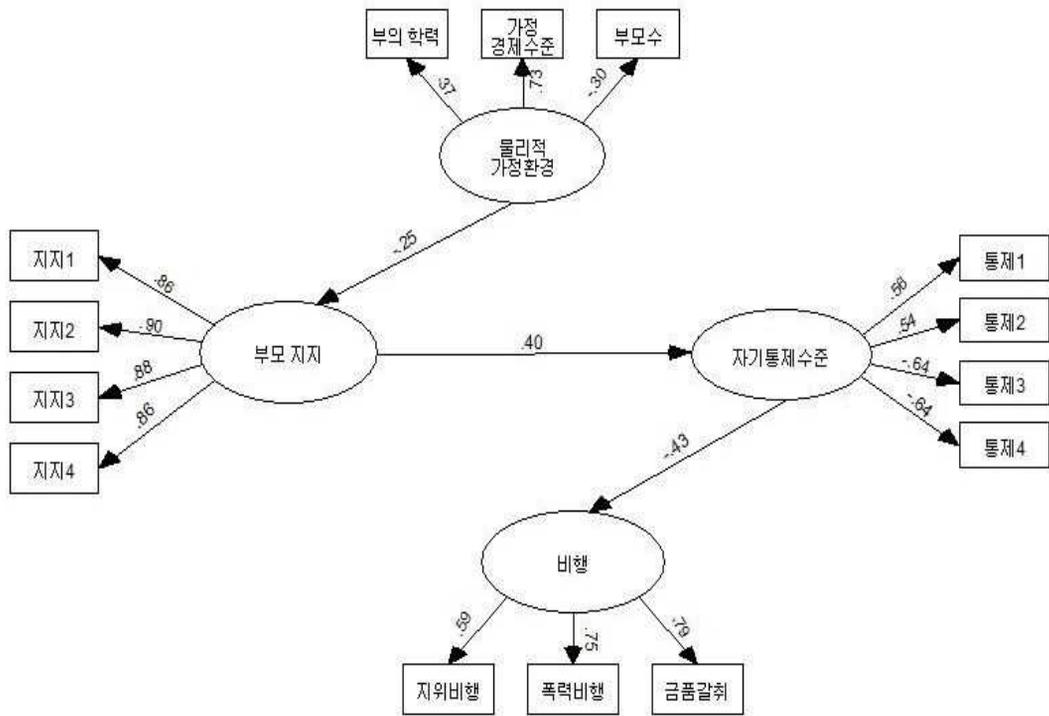
모형	χ^2	df	$\Delta \chi^2$	Δdf	TLI	RMSEA
기저 모형	936.9	148			.989	.050
완전 측정 동일성	987.1	158	50.2	10	.989	.050
부분 측정 동일성	946.5	153	9.6	5	.989	.049
완전 구조 동일성	968.7	156	22.2	3	.989	.050
부분 구조 동일성	951.2	155	4.7	2	.989	.049

각 모형은 그림 1을 참조



* 모든 계수는 $p < .01$, 오차항 생략

그림 5. 여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 모든 계수는 $p < .01$, 오차항 생략

그림 6. 남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

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권재환, 이은희, 2007)이나 애착 수준(황창순, 2007; Armsden & Greenberg, 1987)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임을 시사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회규범에 순응적인 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행 및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얻어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비행 경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형에 따라 남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과 같은 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다른 친구 따돌림 시키기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위계나 권력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위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행을 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단짝 친구와 친밀하면서도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대인관계상의 특성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 결과(Coie & Dodge, 1998; Craig, Pepler, & Atlas, 2000)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차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이 청소년의 성차에 따라 다르게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적 위계나 권력에 대한 재인식 훈련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대인관계상에서 보다 건강한 친밀감 형성 및 유지, 이질집단에 대한 수용에 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통제수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기통제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권재환, 이은희, 2007; 이경님, 2001)와는 불일치하였지만 자기통제수준에서의 성차는 없다는 연구결과(허수경, 이경님, 1996)와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수준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도출된 연구 및 경쟁 모형들을 살펴본 결과, 경쟁모형 2인 물리적 가정환경→부모의 지지→자기통제수준→비행 간의 경로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정환경은 부모의 지지를 완전매개로 하여 자기통제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지지는 자기통제수준을 완전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같은 관계적 변수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나 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하영희, 김경연, 2003; Amato, 2001; Grych, Raynor, & Fosco,

200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지지가 자기통제수준을 완전매개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비행에 자기통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 그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을 주장한 연구(민수홍, 2006; 정소희, 2007)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지만 자기통제감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비행행동을 완전매개한다고 보고한 Feldman과 Weinberger(199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 역시 반복 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지와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통제수준의 매개효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정 적합한 모형으로 밝혀진 선형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게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한 결과, 완전 측정 및 완전 구조 동일성이 성립하지 못하고 부분 측정 및 부분 구조 동일성만 성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동일화 제약을 풀어준 경우는 물리적 가정환경에서 가정의 경제수준, 자기통제수준에서 통제 3과 통제 4, 비행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으로 이러한 측정변수에 있어서는 남녀집단 간 계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 변수들은 동일하다는 부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어 이를 바탕으로 구조 동일성의 성립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분 구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즉, 물리적 가정환경이 부모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지가 자기통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통제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통제수준이 낮을수록 비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그 증가의 폭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연구에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현상을 비행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용한다면 청소년들의 자기통제수준을 높일 때 남자집단보다는 여자집단의 비행 감소에서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동일성 검증에 앞서 측정동일성 검증에서 완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녀 간의 이러한 경로계수의 차이는 부분구조 동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 비행의 측정변인 및 경로계수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지지의 차이를 통해 자기통제수준이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수준, 특히 즉각적인 만족추구에 대한 인식이나 비행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성차 연구도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결과에서 완전 측정 및 구조 동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청소년 비행의 경로 및 구조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남녀 청소년들의 차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비행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이 보이는 양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들의 경향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측정변인에 관한 것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중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측정하는 변인의 경우, 친부모와의 동거여부만을 측정함으로써, 계부나 계모와 함께 살 경우(각각 14사례(0.7%)와 12사례(0.6%))도 한부모 가족(계부모 가정을 포함 모두 195사례(9%))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친부모와의 동거여부 뿐 아니라 계부모 가족과 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구조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및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행의 경우도 각 행동의 경험여부만 측정하였을 뿐 그 이상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의 시작 시기나 빈도 등 보다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정환경, 부모의 지지, 자기통제수준과 청소년들의 비행여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와 구조모형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한 대단위 전국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6). 심리척도 핸드북 I, II. 서울: 학지사.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3(2), 1-17.
- 권재환, 이은희 (2007).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

- 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의 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기광도 (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간의 관계: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 박민정, 이사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정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경 (2006).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백혜정 (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3(6), 27-47.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이순래 (2005). 청소년비행의 발전양태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겨울호), 5-34.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허수경, 이경남 (1996).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발달. 아동학회, 17(2), 221-233.
- 황창순 (2007).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에 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79-862). New York: Wiley.

- Craig, W. M., Pelter, D. J., & Atlas, R. (2000). Observations of bullying o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1*(1), 22-36.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1.
- Feldman, S. S. & Weinberger, D. A.(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1), 195-211.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Tittle, C., Bursick, R., & Arneklev, B.(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36-1041.
- Grych, J. H., Raynor, S. R., & Fosco, G. M. (2004). Family processes that shape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logy, 16*(3), 649-666.
- Hay, C.(2001). Parenting, self-control, and delinquenc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Criminology, 39*(3), 707-736.
- Hughes, S. O., Power, T. G., & Francis, D. J. (1992). *Attachment, autonomy and adolescent drinking: Differentiating abstrainers, experimenters and heavy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Lee, W. (1993).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McLanahan, S.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gan, P., Chang, J., & Pettit, R. (1994).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behavior among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 Polakowski, M. (1994). Liking self- 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1), 41-78.
-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3), 931-964.
- Rosenbaum, J. L. (1989). Family dysfunction and female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35*(1), 31-44.
- Shaffer,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Wadsworth.

Vazsony, A. T. & Bellison, L. M. (2007). The family → low self-control → deviance: A cross-cultural and cross-national test of self-control theor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4), 505-530.

1차 원고 접수: 2009.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11. 16.

최종 게재 결정: 2009. 11. 16.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Home-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ies

Hye-jeong Baek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home-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ies. Participants were 2,368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selected across the country by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In general, boys tended to experience juvenile delinquencies more than girls except for excluding peers. Also, making a comparison among structural models, the linear model of home-environment→parental support→self-control→deviant behaviors indicated the best fit. It means that parental support has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environment and self-control, and self-control has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juvenile delinquencies. However, The model varied with sex, that is, the girls group showed that stronger effect of self-control on juvenile delinquencies than the boy group did.

Keywords: home-environment, parental support, self-control, juvenile delinquency